



2012 ISSUE PAPER

여성노인의 배우자 돌봄: 어떻게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

수행과제명 |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최인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노인의 배우자 돌봄: 어떻게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

수행과제명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최 인 희 연구위원

Tel: 02-3156-7105

e-mail: inhchoi@kwdimail.re.kr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가 장기화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중 배우자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및 긍정적인 경험, 지원제도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많은 여성노인들이 배우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양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양부담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1 배경 및 문제점

- 급속한 고령화 및 가치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많은 여성노인이 배우자 돌봄, 손자녀 양육, 노부모 돌봄 등 가족의 주돌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핵가족화, 돌봄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성인 자녀에 의한 노인돌봄이 어려워지면서 배우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의 가족돌봄은 저평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을 돌보는 성인 자녀의 부양부담과 그 경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년기 배우자 돌봄에 관한 연구는 드문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가 장기화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중 배우자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 및 다양한 어려움, 지원제도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와 함께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여 제도보완 및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 연구방법

- 문헌연구, 2차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였음
- **문헌연구:**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연구 및 부양부담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현황을 검토함

- **2차 통계자료 분석:**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2004, 2008, 2011 노인실태조사와 2006, 2008, 2010 고령화연구패널을 분석하여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실태를 파악함
- **설문조사(n=600):**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조사 형식으로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 중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 300명(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배우자를 돌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돌봄을 수행한 자),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 300명(1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7세 이하 손자녀를 돌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돌봄을 수행한 자)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 **심층면접(n=20):**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 및 노년기에도 지속되는 돌봄일(care work)이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총 10명)과 2)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총 10명)을 선정하여,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음. 면접내용은 면접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후 전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기획, 설문지 개발, 연구내용, 정책대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관련 분야 학자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6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1 노인실태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중고령 및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

1) 2004, 2008, 2011 노인실태조사 분석결과

■ 돌봄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노인 중 배우자 돌봄을 수행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손자녀 돌봄 노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배우자 돌봄 노인은 연령이 높아져도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아 80대 이상의 여성노인들도 배우자 돌봄을 수행함
-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손자녀 돌봄 노인, 일반노인, 배우자 돌봄 노인 순으로 높고, 평균 가구원 수는 손자녀 돌봄 노인이 가장 많음

■ 돌봄유형별 건강상태

- 여성노인의 건강상태를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 필요 항목 수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 필요 항목 수로 측정한 결과,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의 자립도가 손자녀 돌봄 여성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울증 비율은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이 다른 집단(손자녀 돌봄 여성노인, 가족원을 돌보지 않는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 만족도

-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도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이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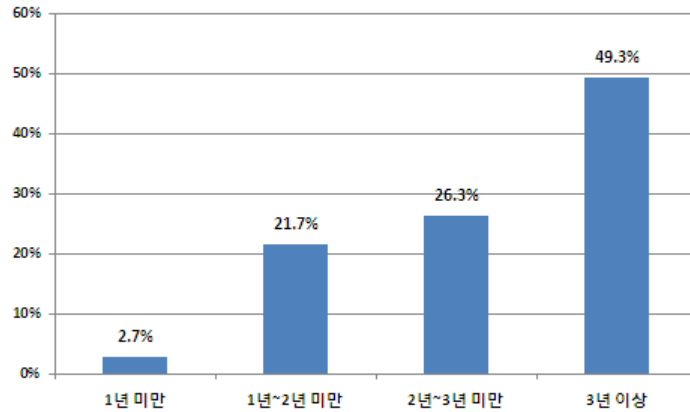
2) 2006, 2008, 2010 고령화 연구패널 분석 결과

- 2006년과 2008년 중 한 해만 배우자 돌봄을 수행한 경우 중고령 여성의 삶의 질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또한, 2008년과 2010년 중 두 해 모두

배우자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는 2010년 중고령 여성의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로 살펴본 여성노인의 배우자 돌봄 현황

- 여성노인들은 대체로 노년기 배우자 돌봄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들이 생애사 전반에 걸쳐 ‘양육자, 돌봄자(carer)’로 사회화되어 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6%가 ‘배우자를 돌보는 일은 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또한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주된 이유는 ‘자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48.7%), ‘배우자가 내가 돌봐주길 원해서’(42.0%), ‘내가 돌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38.7%)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배우자 돌봄은 대체로 배우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됨
 - 본 조사의 경우, 여성노인이 돌보는 남성 배우자들은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평균 3.44개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 행동은 매우 드문 편이었으나 우울증상은 다소 높게 나타남
 - 본 조사에서 여성노인은 평균 40.66개월 동안 배우자를 돌본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배우자를 돌보기전 다른 가족을 돌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2.33%로 나타났으며, 돌봄의 대상은 대체로 여성노인의 시부모 또는 손자녀인 경우가 많았음



■ 그림 1 ■ 배우자 돌봄기간 (n=300)

-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들은 대부분(82.0%)이 거의 매일 배우자 돌봄을 수행하며, 일주일 중 하루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함. 특히, 배우자를 돌볼 때 ‘외출 시 수행’, ‘머리감기 및 목욕시키기’, ‘체위변경’ 등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의 돌봄시간은 1일 평균 9.55시간(표준편차: 6.43), 1주 평균 65.03시간(표준편차: 45.30)으로 조사됨
-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가족, 친구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정기적인 조력자가 있다는 응답(33.0%)보다 없다는 응답(67.0%)이 더 많았으며, 조력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돌봄시간이 여성노인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준임. 한편 일시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16.3%로 나타나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정기적 돌봄 조력자는 대부분이 ‘기혼자녀나 그의 배우자’(57.6%) 또는 ‘미혼자녀’(3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돌봄시간은 1일 평균 4.02시간(표준편차: 3.00), 1주 평균 6.09시간(표준편차: 4.86)으로 조사됨

■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현황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음. 또한, 공적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와 이용비용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혼자서 돌보는 일이 힘들어서’(58.9%),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아서’(19.2%), ‘자녀들의 권유로’(15.1%) 등이 주된 이유였음. 반면,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이 부담되어서’(38.8%),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22.0%), ‘이용자격이 안 되어서’(12.3%) 등의 이유로 나타남

표 1 외부 지원서비스 비이용 이유

구분	배우자 돌봄 노인	
	n	%
돌보는 일이 나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22	9.7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50	22.0
비용이 부담되어서	88	38.8
가까운 거리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14	6.2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11	4.8
이용자격이 안 되어서(예: 등급판정을 못 받아서)	28	12.3
이용방법을 몰라서	12	5.3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2	.9
합계	227	100.0

● 한편 외부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후 경제적 부담 수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담(신체적, 정신적, 가족갈등 등)이 상당 수준 감소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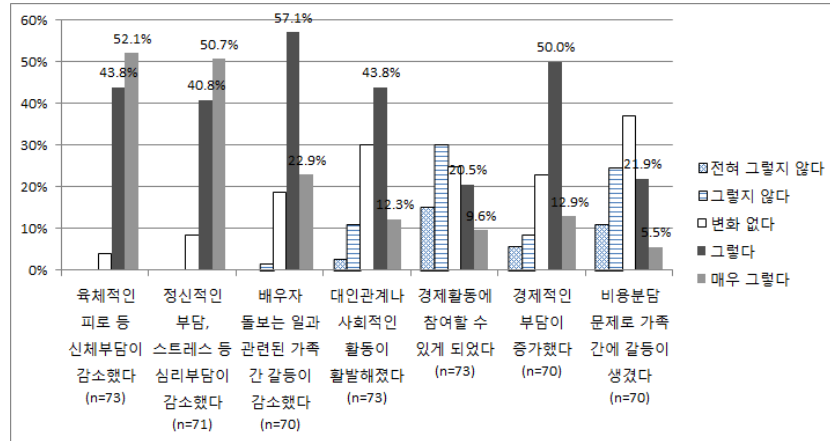


그림 2 외부 지원서비스 이용 후 변화

- 배우자를 돌보며 경험하는 부양부담 중 신체적, 정서적 부양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부담의 경우는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체적 부담) 본 조사에 포함된 여성노인들은 절반 정도가 현재 건강상태를 ‘보통이다’(49.3%)로 응답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나쁜 편이다: 29.7%, 매우 나쁘다, 1.0%)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배우자를 돌보느라 내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조사되었음
- (신체적·정서적 부담) 응답자의 상당수가 ‘배우자를 돌보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한 느낌이 든다’(75.0%), ‘배우자를 돌보느라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65.7%)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56.3%)라고 응답하였음
- (경제적 부담) 다수의 여성노인들이 배우자가 생계활동을 못하게 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적이전소득(예: 연금, 산재보험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체 응답자의 11.3%가 배우자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여성노인이 노후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돌보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돌봄시간이 길수록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러한 부양부담이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재확인함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모두에서 여성노인과 돌봄을 받는 배우자가 맺는 상호관계는 배우자 돌봄을 전후로 일어나는 부부관계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노년기 가족돌봄의 경우 부부관계의 질과 배우자의 여성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양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주기 전반에 걸쳐 부부가 평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돌봄 이전과 비교하여 부부관계에 ‘변화 없다’(72.0%)로 응답하였으나 나빠졌다(약간 나빠졌다: 21.7%, 매우 나빠졌다, 0.7%)는 응답도 존재함

●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매사에 까다로워 내 수발에 불만이 많을 때’(41.3%), ‘약을 먹거나, 식사 혹은 치료 관련 일을 거부할 때’(40.0%), ‘내가 돌봐주는 것에 대해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35.7%) 등이며, 심층면접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배우자가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여성노인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과도한 요구를 할 때 갈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양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인들이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 돌

봄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가족돌봄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함

- 응답자의 절반 이상(57.0%)이 배우자를 돌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35.0%가 ‘배우자를 돌보는 일은 나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라고 응답하였음. 또한, 여성노인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배우자 돌봄일의 사회적 가치를 월평균 약 91만원(표준편차: 35.74)으로 환산하였음

■ 한편, 현재 배우자를 돌봐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돌봄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여성노인이 47%였으나 이들이 예상하는 배우자 돌봄이 끝나는 시점은 ‘내 건강상태가 허락할 때까지’(40.3%), ‘배우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을 때까지’(27.7%),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24.3%) 등으로 예상하고 있어 돌봄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욕구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적 지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 중 ‘노인의료비용 지원’(92.3%), ‘간병인 비용 지원’(90.3%)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재가서비스의 경우 ‘방문목욕’(87.7%), ‘방문간호’(83.3%), ‘방문요양’(82.7%) 등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의 경우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87.4%), ‘외출동행 서비스 지원’(84.0%),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82.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3 정책제언

제안1) 공적 지원체계 확대 및 질적수준 제고

■ 본 연구에 포함된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노인의 경우 제도 이용이 부양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음.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제도를 확장하고, 보다 보편적인 가족돌봄자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한편, 기 시행중인 제도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 및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이 확인된 바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급여확대

● (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2011년 기준 324,412명¹⁾이 인정자로 판정(전체 노인인구의 5.7%) 받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37,738명²⁾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보건복지부, 2012). 따라서, 국민의 부담수준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급여 다양화) 현재 제공되는 재가서비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으므로, 노인과 가족돌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긴급한 상황(예: 주돌봄자의 건강 악화 등) 등으로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p.212

여성노인이나 가족이 일시적으로 노인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의 확충에 대한 욕구, 병원이용 및 외출 시 여성노인을 보조할 수 있는 외부활동 동행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확인된 바, 관련 제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노인이 수술을 받고 퇴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서비스가 부재하므로, post-acute care service(예: 미국의 skilled nursing facility, transitional care programs 등)에 대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는 퇴원 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의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게 될 경우 가족 돌봄자에게 주의할 사항들을 교육하여 노인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임

〈해외 사례〉 회복지원 서비스(post-acute care service)의 예

■ 미국

- 미국에서는 Transitional Care Model, Care Transitions Program, Guided Care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전문가(예: 간호사 등)가 환자의 집에 방문하여 간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고, 가족돌봄자에게 간병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또한, 회복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재입원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Levine, Halper, Peist, & Gould, 2010),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

-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회복지원 가사원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신주쿠구 구청에서는 퇴원직후 또는 골절,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사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3개월 이내 기간동안 홈헬퍼를 파견하여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일본 신주쿠구 구청 홈페이지, 2012)

■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 및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이 확인된 바,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적 부담)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이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여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지만 노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차감대상자의 확대 및 실비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여성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비용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서비스 질)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체계 개발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가체계 개발의 경우, 제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이용노인 및 가족돌봄자)가 실제로 서비스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서비스 인력 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능력에 따른 적절한 평가와 임금,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또한, 정기적으로 체계화된 실무지향적 보수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함

- 돌봄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돌봄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함. 이는 과거 시설서비스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는 유기(遺棄)의 낙인을 가지고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임.
- 본 조사결과에서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확인되었고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노인이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적절한 서비스의 이용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이루어야 함. 이를 위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제안2) 가족돌봄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제도의 확대

-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성인자녀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 자녀들이 돕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쁜 직장생활 때문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재 전반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제도를 노인돌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최희경, 2012)
- 기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대 및 내실화(예: 유급 가족간호 휴직제도³⁾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를 통해 모든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가족생활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3)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8월 2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무급 가족간호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2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예정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고용노동부, 2012).

제안3) 가족돌봄자를 위한 건강지원 프로그램 확대

-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의 연령도 높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며 겪게 되는 만성화된 통증에 대한 운동요법,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임. 또한, 노년기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self-care)’ 개념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주돌봄자가 가족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만성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된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는 총 6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으로, ① 자가관리 방법(예: 운동, 건강검진 등), ② 감정관리(예: 스트레스 대처법, 죄책감, 우울증 극복 방법 등), ③ 자기효용감(self-efficacy) 증진방법, ④ 지역사회 자원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함(최인희외, 2011)
-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관리 관련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제안4) 가족돌봄자를 위한 교육 및 정서적지지 서비스 제공

-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부양자로서의 자기 위상과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가족돌봄자연합(Family Caregiver Alliance) 등에서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예: 의사소통, 재정관

리 관련 단기세미나, 가족돌봄자 학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정보와 장기요양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시·정·촌을 중심으로 가족개호교실을 개설하여,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개호방법, 개호예방, 개호자의 건강지키기 등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교육하고 있음(일본 후생노동성, 2012)

■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의 상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돌봄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예: 질환별 특성, 간호방법, 문제행동 관리 등)를 포함하고, 돌봄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돌봄초기에는 돌봄이 시작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과 관련된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돌봄종결 시에는 사별로 인한 슬픔 극복 및 충격 완화에 대한 내용 및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시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돌봄자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최인희외, 2011)

제안5)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 연구 결과, 돌봄 이전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노년기 배우자 돌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노년기 배우자 돌봄은 부부의 애정이나 부부관계의 역사와 같은 관계적 자원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이순미·김혜경, 2009), 돌봄 이전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성장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2012) 중장년기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부부관계 향상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노년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관한 내용에 대한 비중이 더 큰 상태이므로 추후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안6)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

-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여성노인들이 청장년기에 자녀양육, 부모돌봄 등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취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임금소득의 상실 및 연금 불이익 등으로 인한 측면과 배우자의 발병·사고로 인한 임금소득 감소 및 상실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에 여성노인 및 가족돌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금 크레딧 제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자의 연금수급권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출산, 양육, 케어 등을 사회적 공익기여기간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pension contribution credits)를 도입한 바 있음(김철주·허윤정, 2006).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여성의 가족 돌봄일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연금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돌봄수당) 해외에서는 돌봄수당(carer's allowance) 제도를 시행하여 가족돌봄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돌봄일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돌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별로 보상방법과 적용조건이 다양한데, 공식적으로 고용된 가족돌봄자(family carers)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과 자산조사결과(means-tested)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예: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등)이 대표적임(OECD, 2011). 한편, 돌봄수당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통제의 한계, 비공식적 수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 보상수준이 낮을 경우 성역할의 고착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로 인한 빈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진숙, 2008; 최희경, 2011) 그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 현재 시행중인 각종 노인돌봄 지원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제도이용이 비공식적 가족돌봄자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음
- 기 시행 중인 노인돌봄 지원정책은 수혜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비공식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은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가족의 노인돌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2012). <http://www.familynet.or.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12). <http://www.moel.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김철주·허윤정(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과제-장기요양보험과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79-201.
-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 이순미·김혜경(2009).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 부부가구 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4), 63-94.
- 이진숙(2008). 독일 수발보험에서의 수발수당에 대한 연구: 쟁점과 효과평가. 사회복지정책, 32(3), 27-53.
- 일본 신주쿠구 구청 홈페이지(2012).
http://www.city.shinjuku.lg.jp/fukushi/index05_02.html
- 일본 후생노동성(2012). 개호가족의 니드와 사업현황.
- 최인희·김은지·정수연·양난주(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희경(2011). 노인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연구. 한국사회정책, 18(4), 271-298.
- 최희경(2012).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돌봄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7-32.
- Levine, C., Halper, D., Peist, A., & Gould, D.A.(2010). Bridging troubled waters: Family caregivers, transitions, and long-term care. Health Affairs, 29(1), 116-124.
- OECD(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Health Policy. OECD Publishing.

Family Caregiver Alliance website(2012). <http://www.caregiver.org/jsp/home.jsp>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 website(2012).

<http://www.powerfultoolsforcaregivers.org/>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